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9월 1일까지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신청 접수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9월 1일까지 2026년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은 본격적으로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1~2월)에 맞춰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보급할 수 있도록 사업 전년도에 미리 신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내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공고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품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용(임업·농업용, 상업용,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편의 시설용)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용으로 구분해 제품 금액의 50~70%까지 지원한다.

목재펠릿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중립 연료로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이며,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는 목재펠릿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목재펠릿 1kg은 등유 0.4L를 대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 1.14kgCO₂를 저감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일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 초부터 동절기에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공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책임자	과 장	이성진 (042-481-4200)
		담당자	사무관	강효엽 (042-481-4201)

